

Essay

익초(益草)의 이름



이 청 준 <소설가>

노

인이 염소를 끌고 뜯기러 나가는 것을 보고 아내와 내가 함께 노인을 뒤따라 나선다. 어른 셋이서 조그만 염소새끼 한 마리를 뒤따르다 보니, 나는 옛날 어렸을 적 나 혼자 커다란 성우(成牛)를 몰고 다니던 생각이 되살아 난다.

“허허, 고놈! 그 큰 소가 널 시퍼보고(알잡아 보고) 땀벼들라 조심해라.”

커다란 성우를 다부지게 몰고 다니는 꼬맹이를 보고 어른들이 자주 놀려대던 말이었다. 고삐를 붙들고 뒤를 따르다 보면 그때 정말로 소 엉덩이가 산봉우리처럼 높고 거대했었다.

그런데 이건 마치 노인이나 내가 그때의 일을 못 잊어 풀뜯기 놀이라도 흥내내고 있는 형국이다.

하지만 그것도 잠시 동안의 부질없는 감상일 뿐.

“이 풀은 어째서 못 먹게 하시지요.”

아내가 말동무 삼아 노인에게 묻는다. 노인이 어떤 풀 앞에서 녀석의

입이 닿지 않게 고삐를 끌어 당겨 버리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한 말이다.

“그건 바래기 풀 아니냐, 바래기를 묵으면 맴소는 설사를 한단다.”

노인의 간단한 한 마디 대답에 아내는 잠시 입을 다문다. 하지만 그 아내는 이내 다시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.

“저 풀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?”

염소가 이번에는 개울가에 돌아난 풀포기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다 제풀에 화화 머리를 내젓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.

“그건 미나리 아재비라는 풀이다. 독이 워낙 심해서 사람도 묵으면 창자가 녹아난다는 풀이다. 저런 축생도 다 저 살아갈 지혜는 있는 법 이란다.”

노인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 명료하다.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도 똑같이 무심스럽다.

“그럼, 이녀석이 안심을 하고 뜯어 먹는 풀들은 이름이 무엇인데요?”

“그건 그냥 풀들 아니냐.”

“풀이라도 무슨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”

“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……. 허지만 그런 건 다 알아서 뵈하냐. 그냥 해가 없는 풀들인 증만 알면 그만이지.”

노인과 아내는 문답을 계속한다. 나는 이제 그 늙은 할머니와 손녀딸 같은 고부간의 문답에 문득 어떤 삶의 지혜 같은 걸 읽는다.

어렸을 적, 들길을 다녀오다 여기저기 옷깃에다 푸나무 열매를 묻혀 오는 일이 많았다.

“도꼬마리구나.”

노인은 옷깃에서 열매들을 떼어 주며 일러주곤 하였다. 어떤 때는 또 바짓가랑이에 붙은 갈고리 모양의 풀씨들을 뜯어 내며 다른 풀 이름을 일러주기도 하였다. 그것은 도깨비 바늘이라는 푸나무 열매였다.

사람을 괴롭혀 대는 풀이나 독초를 가려내는 지혜는 사람이나 축생

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. 노인은 굳이 그 푸나무의 잎이나 열매 따위를 보지 않고도 그 흔적만으로 해초나 독초의 이름을 알아 맞힐 적도 많았다.

“억갈나무 앞에 베었구나,”

한번은 어디선가 칼날에 벤 듯한 팔뚝의 상처를 얻어 온 것을 보고 노인이 금세 그렇게 말했다. 또 한번은 팔뚝에 별건 염증기가 줄을 이룬 것을 보고 이런 걱정을 한 일도 있었다.

“웃나무를 모르고 살을 찻겼구나. 산에선 웃나무를 조심해야 하는 다…….”

이로운 푸나무들이라고 이름들이 없을 리는 없었다. 그 이름들이 기억되거나 들먹여질 일이 없을 리도 없었다. 하지만 노인의 관심은 자주 그 해초나 독초 쪽에 기울어 있었고 그 이름들도 늘 그쪽의 등살에 그 이름들이 차차 지워져서 그저 풀이요, 나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다.

사람들을 괴롭히는 풀이 먼저 이름을 얻는다. 그리고 독초의 이름이 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오래 기억된다(?)

노인의 지혜는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일 리가 없었다.

하지만 노인은 그 지혜조차 지혜로 기억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.

“어머닌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도 아세요?”

아내의 호기심은 아직도 그칠 줄을 모른다. 그러나 그 아내에 대한 노인의 대꾸는 여전히 담담하고 무심스럽기만 하다.

“글썸다……. 그런 걸 언제 다 부러 베웠잖나. 한 세상 살다 보니 그냥 어찌다 알게 된 것이겠제…….” ▲▲